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월 18일(금)

(음력 12월 13일)

Пятница

18 января 2019г.

№ 2(11681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우리말 방송의 기획 체호브 기자상 수상

1월 13일 출판일을 앞두고 지난 12일 러시아기자연맹 사할린지부가 주내 언론인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체호브상 수상을 가졌다. 사할린주에서 기자들 사이에 가장 명성 높은 체호브상은 50여 년 전부터 해마다 수여하는 상이다. 2018년 체호브상 다수는 사호콤 통신사와 <구베른스키에 웨도모스찌>출판사(신문, 통신사, 티비방송)의 기자들이 받았다.

올해는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 우리말방송 이복순 기자가 우수 프로젝트 부문에서 체호브상 상장을 받았다. 이 기자의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 80주년>이란 기획이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본사 기자)

▲ 사할린주기자연맹 류보위 카시안 회장이 이복순 기자에게 상장 수여. (키릴 야스코 촬영)

## 단신

### 제르페니아만에서 첫 나와가 5만 톤 획득

1월 12일 저녁에 사할린 수산업체들이 포로나이스크구역에서 올해 첫 나와가 5만 톤을 어획했다. 제르페니아만에서 나와가 어획에 며칠간 어로구역을 면밀히 탐색한 가운데 <드루즈바>수산업 콜호즈, <리마크> 유한회사의 선박들이 조업에 나섰다.

현재 나와가 어획에 어로 허가증이 있는 동부상업회사의 선박들이 쌍끌이 기선 저인망으로 조업했고 작년 1월 10일에는 산업용 첫 나와가잡이에 <두르즈바>수산업콜호즈의 어선이 나섰다.

### 사할린주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에 1억1860만 루블리 지원

올해 사할린주 정부는 주거개선 조건이 필요하다 인정된 자녀 4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일시 사회적 지원금 형식으로 사회적 지원을 계속한다.

한 가정당 평균 750만 루블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주정부 지원금을 50가정이 받았는데 총 2억8050만 루블리가 지급되었고 작년에는 72가정에 3억7620만 루블리가 지급되었다. 올해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지원금으로 주택에서 1억1860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2018년 연말에는 이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19가정의 모든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회적 지원은 계속되어 재등록 후 주거조건의 개선을 요청하여 올해 등록부에 오른 다자녀가정이 제출하는 서류들을 내내 접수하고 있다.

### 사할린 주민, 송어낚시로 하루에 5킬로그램까지 잡을 수 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권한대행은 모스크바 출장 시 러시아 연방 농업부 차관인 일리야 웨스타코브 연방수산청 지도자와 만나 2018년 연송어기 결과, 반불법조업정책, 사할린지역 정부와 러시아 수산청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 사할린주 종합수산업 발전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협력을 논의했다.

면담에서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대행은 사할린주의 주민들에게 중요한 연송어낚시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러시아수산청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주민들의 소비를 위한 조건적 연송어낚시의 자유를 허락했다. 조건은 해안가에서 낚시기구를 이용한 어획방식으로 어획량은 1일 5킬로그램 이하로 한정했다. 사할린 지방자치체에서는 이미 송어 낚시터를 선정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해당 변경사항을 '극동어로수역 어업규정'에 수정해 넣을 예정이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있어 주요 생선 어로에 대한 기본 규정은 초기 연송어 유입 즈음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한편 전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는 연송어 3마리까지 자유롭게 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얼마 안 되어 이 제안은 취소되었다.

## 사할린주정부, 인사이동

사할린주 정부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사할린주 정부 부수상 권한대행으로 세르게이 나우모브와 세르게이 올론체브가 부임했다.

세르게이 나우모브는(1959년생) 사회복지, 청소년 정책, 그리고 교육 문제를 담당하고 세르게이 올론체브는(1962년생) 건설 및 교통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대행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다. 나우모브 부수상 권한대행은 10년간 니즈니노고로드주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고 세르게이 올론체브는 최근에 니즈니 노고로드 <아세(아름스트로이엑스포르트)>엔지니어링 회사의 벨로루시 원자력발전소 담당 부회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디지털 개발 및 통신부장관 대행으로 드미트리 마자린이 부임했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출신의 그는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업을 해왔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를 비롯한 국가 정보 및 무역산업 시스템에 IT-기획을 도입, 실시했다.

며칠 전에는 사할린주지사 및 정부 모스크바 대표 지도자 올레그 코츠노브가 해임되어 권한대행으로 대표실 부실장 나탈리아 루키나가 부임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유즈노사할린스크, <아시아의 아이들> 제1회 국제동계스포츠대회 문화공원 조성

지난 10일(목)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주정부 부총리인 유리 트루트네브 극동연방구 러시아대통령 전권대표가 <아시아 아이들>제1회 동계스포츠대회 진행준비를 의제로 대회조직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사할린주 정부지도부, 대회 준비에 참가하는 해당 연방 부서 대표들이 참석했다.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회의에서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찾는 많은 손님들이 러시아와 사할린에 대한 좋은 추억을 쌓고, 이를 통해 사할린의 스포츠와 스포츠 문화에 관심을 높이고 스포츠 장비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스포츠의 발전이 주요 목적인데 사할린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아이들> 첫 국제동계스포츠대회를 높은 수준의 국제적 경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권한대행은 대회의 준비과정을 보고한 가운데 경기 참가자들이 사할린에 2월 8일(금)에 도착할 예정이며 9일(토)에는 개막식, 2월 16일(토)에 폐막식을 거행할 계획이라고 하고, 경기진행 편성도 확정되어 모든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시설 준비 마무리와 선수들의 숙소 및 식사 준비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대회에서는 8개 종목(바이애슬론, 스노우보드, 크로스컨트리, 알파인스키, 아이스하키, 스키점프, 쇼트트랙, 피겨)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총 경기에 우승 메달은 91개로 러시아의 9개 선수단을 포함한 20개국의 28개 선수단(1300여 명)이 경기에 참가한다. 이 중 경기참가선수 863명이고 심판 600명, 대회에 10개 방면에서

도올 자원봉사자는 1000명이 넘는다. 경기는 6개 스포츠단지 - <고르니 워스투흐> 스포츠관광단지, 바이애슬론 단지, <크리스탈>빙상장, <아레나시티>종합빙상장, 스키점프단지, 파르크와야산-에서 진행된다. 리마렌코 권한대행은 국제스포츠 전문가들이 대회를 치를 모든 시설의 검사·검열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대회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의 주요 숙소는 <위스토크>훈련·감습센터, <윤노스치> 하이브리드 호텔, <시네고르스크 미네랄 워터>요양소, 의과전문대학의 기숙사를 비롯한 27개 숙박시설에서 2536명이 기거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운행으로 선수들을 숙박시설, 식당, 훈련장, 경기장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대회 중 보안 및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한 가운데 보안기관의 활동요원과 시설 운영의 감시 시스템도 확보되었다. 대회 중에 문화와 관광 및 관람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축제, 관람, 대회 시상식과 공연을 진행할 문화공원이 개장된다.

대회의 개막식과 폐막식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축하 공연에는 러시아 각 지역의 예술단 1000여 명 이상이 출연할 예정이다. 성화 봉송은 사할린의 지방을(4112 km) 돌아 2월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로에 도착해 9일(토) 개막식에서 점화가 이뤄진다.

<아시아의 아이들> 첫 국제동계스포츠대회의 주후원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유네스코, 국제올림픽위원회이며 러시아 연방 정부, 아시아올림픽위원회,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러시아체육부가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극동개발부 홍보실이 전했다.

# 2018년을 돌이켜보며

##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행사·사건·이벤트

### (전호의 계속)

2018년도 역시 사할린 한인 사회계에 다양하고 중대한 행사가 많은 해였다.

9월 1일 - 10월 25일 - 한국 국립국어원으로부터 해외 파견 한국어 예비교원 실습사업 위탁을 받고 경희대학교 지휘 아래 한국 대학생들이 두 달간 사할린에서 한글교육을 펼침.

9월 7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운명의 무늬>수집 출판기념회 개최. 주최: 유즈노사할린스크시도서관.

9월 7일 - 사할린한국교육원 한국어 수업 개강식 (사할린한인문화센터).

9월 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자매결연 도시 안산문화원 예술단들과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예술단(하늘, 아리랑)들의 공연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9월 13일 - 제6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환송식(한인문화센터).

9월 18일-20일 -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 공동 서명.

9월 20일 - 한국 경기도미술관(안산시) <코리안다이스포라, 이산을 넘어>특별기획전 열림. 특별전에 중국·일본·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지역 5개국 참가, 주명수·조성용 화가가 사할린을 대표함.

9월 22일 - 돌린스크에서 사할린주 한인회 주최 미니축구대회 개최.

9월 29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 대표자회의 개최.

10월 3일 - <에트노스>아동 예술학교 한민족과 신 울리아 과장 <사할린주의 공훈 교사>칭호 받아

10월 5일 - <오스트로브>사할린주 무술회와 한국 양주시 합기도협회가 자매결연 협약식 가졌음.

10월 6일 -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 <김치축제> 펼침.

10월 10일 - 사할린의 씨름 활성화에 대한 5각 (인천광역시 씨름협회, 사할린주 스포츠클럽청년정책부, 사할린주 씨름협회, 사할린주 한인협회, 메가팔라스호텔) 양해각서 체결식이 이뤄짐.

10월 15일-20일간 - 사할린국립대학교 인문·역사·동양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연수와 학술세미나를 개최. 행사 주최: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와 외국어과, 후원: 사할린한국교육원, 재외동포재단.

10월 18일 - 제18기 고급관리자과정 항일독립운동 문화탐방 국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대표단(23명)이 사할린을 방문.

10월 2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회가 추진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프로젝트 일환으로 <장인들의 도시>문화체험축제 개최.

10월 20일 - 시네고르스크에서 사시던 김윤덕 어르신(95세)을 일기로 별세. 강제징용의 증인들

세상을 떠나다.

10월 26일 -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러시아 명예 미술가 주명수 화가 고회 기념 <변화의 시간>개인 전시회 개최.

11월 12일 - 허진원 한국 극작가와의 만남 <문학의 밤> 개최. 허 작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사할린에 파견. 주최: 새고려신문사, 후원: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인협회.

11월 19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입장문 발표 (추모관 건립에 대한 입장,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역할과 대표성에 대한 입장, 한국한인회와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의 갈등에 대한 설명). 11월 23일 호 새고려신문에 게재.

11월 19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보건의료지원 활동으로 한국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음.

11월 19-22일 -25일 - 사할린 잔류 1세대의 의료서비스 문제로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 한국에서 한국 초청진료 사업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은 사할린 1세 동포들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주 한인협회와 의료지원 확대 문제를 논의.

11월 20일 -26일 - 7일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18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사할린주 씨름협회팀이 출전.

11월 24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여성

회의 주최로 러시아 어머니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

12월 7일 -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의 조기 권한 종료와 관련하여 연방법에 따라 사할린주지사를 선출하기 전 리마렌코 알레리 이고레위츠를 사할린주지사 권한대행으로 임명.

12월 7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행사를 거행.

12월 7일 - 사할린의 허남영(허로만) 작가 시인이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2018년 초에 출간된 2권의 책 출판기념회를 열.

12월 9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25주년 기념 태권도·씨름축제를 펼침. 주최: <오스트로브>무술센터와 사할린주 씨름협회, 후원: 주한인협회.

12월 12일 - 재외동포재단이 연말을 맞아 한국 29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약 2천 8백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

12월 14일-15일 사할린에서 한국 김포시 (재)김포문화재단 '김포평화민속예술단'의 전통예술공연과 김포를 소개하는 미술전시회 개최.

주최: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 14일 - 네벨스크공연(네벨스크시와 사할린 문화부 후원), 1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공연(사할린주 한인협회 후원).

12월 19일 - 사할린한인문화

센터에서 조성용 동포 화가의 <유럽여행>사진전이 열림. 후원: 주한인협회.

12월 21일 - 한국 한림대학교에서 <한-러시아 극동 경제협력과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미래>주제로 2018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가 개최. 학술회는 사할린국립대학교, 한림대학교러시아학과와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공동주최, 재외동포재단, 한림대학교와 강원도민일보가 후원.

12월 2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의 결산·선거회의 소집.

12월 22일 - 코르사코브 <플라그만>스포츠단지에서 <사할린-한국복싱 꿈나무 친선경기>가 열림. 김주영(용인대교수) 한국복싱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지도자 등 복싱 영재 6명이 사할린을 방문, 행사에 참가. 사할린주 스포츠부와 한국복싱진흥원 간 협력협정을 체결.

12월 24일 - 부산외국어대학 이재혁 교수와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촬영팀이 사할린을 방문,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취재, 촬영작업을 함. 이들은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극동지역의 여러 곳을 돌며 역사와 문화 탐방지를 영상으로 담을 계획을 가짐.

12월 25일 - 새해를 앞두고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청년부 사할린주 아동병원 신생아 병리과에 기저귀 144팩을 기증.

(본사 편집부)

## 이모저모

###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사할린 한인> 소개 책자 출판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새로운 출간물 <사할린 한인.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의 소장 카탈로그 컬렉션>이 출판되었다. 박물관 전문가인 김영희와 카.야.체르파코와는 사할린 한인들이 수십년간 수집하여 향토박물관에 기증한 6000여 점의 소장품(일상 생활용 소장품, 사진, 가구 등)을 책자에서 소개한다.

1월 24일(목) 박물관에서 책자를 소개하는 출판기념식을 가지고 참석자들에게 책자를 선사할 예정이다.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здал каталог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вышло новое издание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талог коллекций из собр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отрудниками Ким Ен Хи и К.Я. Черпаковой в каталоге собраны более 600 предметов (предметы быта, фотографии, мебель и т.д.), которые за десятилетия были подарены музею корейц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4 января в музее состоится презентация каталога, где можно будет получить книгу в подарок.

### 4 명의 사할린 검도선수, 국가대표로 선발

레온 클류예브, 다니엘 황, 김만옥과 리태수(사범와집 폴리친스키)가 러시아 검도 청소년국가대표팀에 들어갔다. 이는 그들이 러시아 검도 팀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덕에 가능했다. 현재 사할린선수들은 2003년 세계챔피언대회 동메달 수상 경력이 있는 임근배 사범의 지도 아래 한국 천안시 선수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한 달 후 선수들은 모스크바에서 진행될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훈련하게 되는데 이 훈련 결과로 선별하여 5월 24-26일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유럽 검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대표선수단이 구성된다고 사할린주 검도연합회가 전했다.

### Четверо сахалинцев вошли в состав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по кендо

Леон Ключев, Даниил Хван, Ким Ман Ок и Ри Те Су (тренер Вадим Полицинский) вошли в состав юниорской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по кендо.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завоеванному золоту в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портсмены проходят подготовку в Корею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бронзового призера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2003 года Им Гын Бэ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оманде города Чхонан.

Через месяц спортсменам предстои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рениров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в Москве,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торых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 основной состав для участия в чемпионате Европы (24-26 мая в Сербии),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ендо.

### 유즈노할린스크 소년·소녀들에게 <메츠타>에 입단을 권한다

1월 19일 16시 30분 <메츠타(꿈)>무용단 단원 추가모집을 할 예정이다.

G-Next(지 넥스트)무용단과 <아니메>무용단에 9세부터 14세까지의 소년·소녀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G-Next무용단 학생들은 위탈리 프로타소브 안무가의 지도로 현대 무용(브레이크댄스, 클럽 댄스, 힙합)을 배우고 아니메 무용단은 알렉산드르 윌로진 지도로 재즈, 현대무용과 팝댄스를 배우게 된다. 선발 과정은 일반적 신체발달, 리듬감, 청음, 유연성 등을 포함한 시험 결과로 10명-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화 73-66-94로 신청과 문의를 받는다고 <메츠타>무용센터에서 전했다.

### Юным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пробовать попасть в "Мечту"

19 января в 16.30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 набор в коллективы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Мечта".

В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ансамбли G-Next и "Аниме" будут отобраны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в возрасте от 9 до 14 лет. Воспитанник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ансамбля G-Next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италия Протасова на занятиях изучают современную хореографию: break dance, club dance, hip-hop.

Основные танцеваль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ансамбля "Аним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лександра Володина — джаз, модерн и эстрадный танец.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творческих испытаний,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проверку общего физ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чувства ритма и слуха, гибкость, будет отобрано 10-12 ребят.

Запись и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3-66-94,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Мечта".

### 신년방학 기간에 2 천명 이상이 해외로

새해 명절 기간에 3500 명 이상이 사할린 호무토워 공항을 통해 러시아 연방 국경을 통과했다.

여행자들은 해외 직항으로 한국, 일본, 태국으로 떠났다.

사할린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2000명이 해외로 떠났고, 1500명이 아시아권의 국가들에서 입국했다고 한다. 작년 신년방학 기간에 4천여 명 이상이 해외로 떠난 것에 비하면 감소한 셈이다. 전년 대비 유사 시기에 해외로 떠나는 항공기 수는 전년 52대, 올해 42대였다. 위반사항도 없지 않았다. 서울에서 사할린행 항공기로 입국한 덴마크인이 신고 물품에 대한 세관 규정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말보로' 담배30갑, '피트'전자담배 180갑을 통관시키려 했다. 입국 시 통관규정상 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까지 총 200갑 이상은 통관이 안 된다. 물품은 압수되어 압수창고에 보관되었다. (8면에 계속)

# 조선 시조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동포 시인

지난해 사할린 허남영(허로만) 작가·시인의 작품들로 구성된 2권의 선집을 출간했다. 3월에 모스크바에서 가진 출판기념회로 시작하여 그동안 사할린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여러 문학의 밤을 개최해 출판된 새 책과 자신의 창작세계를 소개했다. 그의 선집 1권은 <노타 라(음표라)>는 시, 에세이, 단편소설을 위주로, <밝은 밤>이란 2권은 조선 시조 번역본으로 돼 있다.



지난 11일(금) 허 시인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독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표현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허 시인은 동양적 성품을 지니고 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우리 글로 시를 쓰는 그는 25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시를 쓰게 되었다고 했다. 8살 때 처음 본 신문에 그의 시가 게재되기도 했다.

독자들과 만남에서 그는 평양에서 출간한 조선시조 책을 1980년대 유즈노사할린스크 <소브레멘니크>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해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 조선시조집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출간해 조선시대의 유명시인, 무명시인들의 아름다운 창작을 제대로 전 달하려고 했다. 이날 다수 관객이 한인 동포여서 허 시인은 조선시조 외에 자신의 시를 통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허남영 문학인은 자신의 시로 직접 작곡한 노래를 기타를 치며

허남영 시인이 한글과 러어로 쓴 시를 소개한다.

### 소원

햇살이 되어  
햇살이 되어  
아버님의 유년시절이  
흐르던 마당에서  
마음껏 희롱해봤으면!  
바람이 되어  
바람이 되어  
어머님이 어렸을 적에  
좋아하셨던 감나무와  
마음껏 속삭여봤으면!

### 자장가

야밤 안개 속에서  
날아오는 저 새  
우리 엄마 아닌가?  
말해주세요.  
죽어 새가 되었으면-  
말씀하셨던 어머니  
정말 새가 되었나요?  
말해주세요.  
아! 정다운 저 울음...  
나의 요람 위에서  
어머님이 부르셨던  
자장가지요.  
나의 생 - 병아리  
귀여운 금동이...  
밤새도록 새울음...  
밤새도록 새울음...

### 푸른 섬

(러시아어 번역 없음)

대양 가운데  
푸른 푸른 섬  
손바닥 만한 섬  
둘이서 살 만한 섬  
사철 매화꽃  
향기로운 섬  
학이 사는 섬  
푸른 푸른 섬  
와실을 지어놓고  
둘이서 살자

낭송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그리는 시들이 마음에 와닿았다. 모국어와 러시아어로 낭송하는 허 시인의 시들은 관객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 Желание

Солнечным зайчиком,  
солнечным зайчиком  
мерцать бы во дворе,  
где не был ни разу я,  
где отроком светлым  
играет отец мой!..  
Пахучим ветром,  
пахучим ветром  
ласкать бы во дворе  
хурму на дереве,  
где девочкой светлой  
смеется мама!..

### Колыбельная

Из ночного тумана  
птица летит...  
Может, мама моя?  
Скажи мне, о ночь!  
«Вот умру – стану птицей», –  
мечтала она...  
Может, мама летит?  
Скажи мне, о луна!  
Узнаю этот плач –  
так пела лишь мама  
светлую песню свою  
над колыбелью моей.  
Жизнь моя – словно желтый  
комочек-птенец...  
И птица – летит, летит...

흰 달을 구경하며  
둘이서 살자  
진달래와 호랑나비처럼  
진달래와 호랑나비처럼  
대양 가운데  
푸른 푸른 섬  
손바닥 만한 섬  
둘이서 살 만한 섬  
배를 만들어  
뚝 올려야지  
꿈에 보였네  
푸른 푸른 섬

이날 문학의 밤은 허 로만 시인의 책 사인회로 마무리했다.

현재 허 로만 시인의 팬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그의 선집 출판기념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배순신 기자)

# 사할린과 한국: 문화 및 교육을 통해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형성

임 엘비라, 사할린국립대학 한국어교수 (전호의 계속)

국제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의식이 풍부해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알맞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행동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Cross-cultural Competence)을 키운다. 즉, 다른 문화권을 배경지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과 효율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형성해주는 데에 큰 힘을 준다고 했다.

##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탄뎀 수업

상호문화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형성하는데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 교육정책의 목표 중에 러시아 사회의 언어와 전통의 다양성을 살리는데에 있다. 왜냐하면 여러 민족이 갖고 있는 다양성이 러시아 사회 특징이라 여기며 보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민족의 문화 이해, 상호 우호관계, 타민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란 개념은 교육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됐다.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울 때 어휘와 문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이 중요하다.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위의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자들은 타문화를 배울 때 자기의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며 배우는 것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더욱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외국어를 배우는 목표가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인식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학생은 교환학생으로 온 러시아어 전공하는 한국 대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는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탄뎀 수업이 있다.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인식 (문화인식) 과정:

-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 지식을 쌓는다.
-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자기의 나라의 문화와 비교한다.
- 의사소통하면서 자기의 나라와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 2. 교육 과정:
  - 의사소통의 문화, 발표 및 글을 쓰는 법을 형성한다.
  - 실제적 과제 (linguacultural authentic task)를 읽는 능력을 갖춘다.
  - 3. 발전 과정:
    - 외국어를 상호문화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 문화적 정보를 이해하는 지식 및 창의적 능력을 갖춘다.
    - 커뮤니케이션과 협조 능력을 갖춘다.
    - 4. 교양 과정:
      - 다른 문화를 존중, 인내, 다른 나라의 문화를 통해 자기의 문화를 깊이 파악한다.
      - 애국심, 자기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춘다.
      - 상호협조의 필요함을 느끼다.

이와 같은 수업은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다양한 실제적 과제와 활동을 통해 문화를 이해시켜주고 문화 지식을 (background knowledge) 갖추게 된다. 정보 찾기, 인터뷰, 토론하기, 프로젝트 같은 활동을 만들기 위해 작 활동, 소그룹 활동, 전체 활동이 다양하다.

(계속)

## 제 63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 1. 목적

-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 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 시 : 2019. 4. 21(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4. 장소 및 시행처 : 사할린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19. 1.14 ~ 2019. 1.30

나. 교부 장소 : 사할린한국교육원, 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전화: 505696

6. 응시 수수료 : 500루블, 사진 2매(3\*4)

7. 시험결과 발표 : 2019. 5.30 이후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есмотря на санк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необходимо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НДР, обратив при этом внимание на многосторонни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одразумевают также участие России и Китая. Об этом заявили участники прошедшей в Сеуле конференции "Реальная ситуация в экономик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условия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мментируя ситуацию в экономике КНДР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Янбян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итай) Ан Гук Сан отметил,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хеньян делает активную ставку на развитие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которы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южную" (Кэсонский технопарк), "северную" (Расон), "западную" (Синийчжу) и "восточную" (Туристическая зона Вонсан-Кымгансан). Признав, что при работ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уществует немало различных сложностей и проблем, он призвал расширя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НДР как с пози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так и в много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с участием России и Китая.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щая воля все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с КНДР государств. А сами проекты имеют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азвития", - подчеркнул эксперт.

Схожий тезис озвучил и профессор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нька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яньцзинь, КНР)

## В Сеуле призвали к многосторонн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КНДР и Россией

Ли Чхун Бок. "Мы должны изменить существующую модел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двусторонней КНДР-КНР, КНР-РК, РК-КНДР в трехстороннюю, где работают сразу три государства вместе - Южна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Китай". Ли также указал на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КНР "Один пояс - один путь".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 Китае уже разработан план сопряжения китайской стратегии с РК и КНДР, где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ых железных и шоссейных дорог из Китая через Синийчжу, Пхеньян, Сеул и до Пусана.

"Если повысить технический уровень и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то межкорейское промышленно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ож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новый путь и хороший шанс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РК", - отметил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Сок Ки.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веденные в КНДР за время правления Ким Чен Ына реформы позволили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существующих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препятству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Сеулом.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а объединения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Чхве Чжан Хо отметил, что примерно с авгус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очень сильно ощущать эффект о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введенных против КНДР. "Сейчас пока нет окончате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но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оценкам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дефицит КНДР составил около 1,7 млрд. долл. Если прибавить дефицит 2017 года, то общая цифра за два года превысит три миллиарда. С учетом небольших размеров экономики КНДР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ой дефицит", - сказал Чхве, признав,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се равно продолжа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не демонстрирует признаков серьезного кризиса.

Эксперт предложил не ждать улучшения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т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которые не подпадают под санкции. Среди этих сфер были названы гуманитарные проекты, включая поставки в КНДР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текстиля.

Чхве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звал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ы по соединению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а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уже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открыть прямое воздуш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а также нача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скими самолетами воздуш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КНДР, что позволит сократить расходы на некотор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едставивш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РК Син Хе Сон,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ляет в ведомстве Отдел меж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разделяет все эти призывы по разви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и окружающими странами, но их пока трудно реализовать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К сожалению, нам приходится учитывать в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А поэтому пок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ом у нас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ное", - сказал он, указывая на действующие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ые, так и односторонние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а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в ведомстве возлагают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считая, что наступивший 2019 год может стать крайне важным и показательным в этом план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коростной магистрали Екатеринбург - Челябинск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эксплуатаци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проведё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проекта скоростн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магистрали Екатеринбург - Челябинск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218 км. Данный маршрут входит в Уральскую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ую магистраль, которая станет частью коридора Москва-Пекин. Проведение ТЭО позволит выяв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ме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оссии. **(KBS World)**

###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с 14 лет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и др.)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с 14 января 2019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11 февраля 2019г.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83 а, офис 3.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Режим работы:

9:00 – 18:00

Обед:

12:30 – 14:00

\*При себе иметь фото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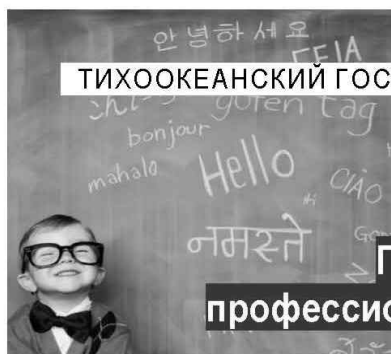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г. ХАБАРОВСК

Факульт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родолжает набор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очно-заочна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Кол-во часов:** 252 час.
- **Требования к слушателям** (зна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 **Условие** - прохождение аттестации; оплата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Диплом даёт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mail: Ase65@bk.ru

**В** [https://vk.com/ase\\_sr](https://vk.com/ase_sr)

☎ 8962 154 88 65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обязательна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Сахалинская, 219, 2-й этаж.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ВИФЛЕЕМ-З3» (район Владимировки, остановка «Спутник»)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вотсап:**

**+ 7 962 154 8865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КНДР потребовала возобновить межкоре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НДР потребовала возобновл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дчеркнув важность расширения обмена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Такая позиция 14 январ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 статье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м сайте Уриминжоккири. В ней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от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ш народ» получит реальную выгоду. В статье также приводится часть новогоднего обращ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о готовности без каких-либо условий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Кэсонск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ездов в горы Кымгансан, учитывая сложное положение и жел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Другое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е издание «Мэари» также указало, что если бы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Юга и Севера было более активным, то РК могла бы избежать нынешн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встретился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Чхве Сон Хи

12 января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встретился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К Чхве Сон Хи, которая отвечает за контакты с США и проблему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на странице российского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Facebook.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информацией по текущим вопросам, в том числе по итогам визи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в Пекин.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пут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региона. Чхве Сон Хи отметила, что тактика и стратегия МИД КНДР в вопрос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олностью основаны на принципах, обозначен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ом в его новогодней речи. Это была вторая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встреча главы российского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с Чхве Сон Хи. Предыдущая встреча имела место 7 января.

## Рост населения РК достиг нового минимум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составляла 51 млн 826 тыс. человек, а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южнокорейцев впервые составил 42 год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14 января докладе министерств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выросла на 0,09%, что является минимальным ростом за всё время сбора статистики. Отметка впервые упала ниже 1%.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постоянное снижение с 2009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граждан младше 50 лет сократилось, а старше - выросло. Доля граждан в возрасте до 9 лет впервые оказалась меньше половины населения от 50 до 59 лет, составив 49,9%. Численность людей старше 100 лет выросла с 17.800 человек в 2017 году до 18.790 человек в 2018 году. Доля граждан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достигла 14,8% вс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Количество домохозяйств выросло на 1,9%, составив 22 млн 42 тыс. 900 семей.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отмечен в шести городах и провинциях,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Сэчжон и Чечжудо. Отток из Сеула составил 91.800 человек.

## Количество долгосрочных безработных в РК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о 150 тыс. челове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безработных в РК составило 1 млн 73 тыс. человек. Из них 154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те, кто не может найти работу более полугода, то есть долгосрочные безработны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в понедельник Националь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Число долгосрочных безработных увеличилось на 9 тыс. человек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Кроме того,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оказался самым большим с 2000 года,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в 150 тыс. человек. Если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безработных выросло на 4,9%, то долгосрочных безработных - на 6%. Это указывает, что проблема безработицы усугуб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количественном, но и в качественном отношении.

## Митинги перед посольством Японии в Сеуле проводятся уже 27 лет

9 января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женщин,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Корейский совет по делам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провели очередной митинг перед посольством Японии в Сеуле. Они также отметили 27-летие начала данных митингов, которые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ся с 8 января 1992 года. Первый митинг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по случаю визита в РК бывш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Киити Миядзава. С тех пор митинги проходят каждую среду. Жертв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и простые жители РК требуют от японских властей официальных извинений и законной компенсаци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данная проблема будет решена, а права и достоинство жертв будут восстановлены. Сами жертв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не участвовали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RKI)

## Корею накрыл ядовитый смог

**"Сегодня в воздухе очень высокое содержание пыли. Рекомендуем,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оставаться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и не выходить на улицу. Если же вынуждены выходить, то обязательно одевайте маски с фильтрами" - так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метеорологов стали уже привычными для жи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ся страна вот уже пятый день подряд накрыта мощным ядовитым покрывалом смога, а содержание крайне вредных для здоровья ультрадисперсных частиц PM2.5 превышает норму до десяти раз.**

На улицах людей гораздо меньше, чем обычно. Все пытаются оставаться в помещениях, а потому книжные магазины, универмаги, торговые центры, наоборот, переполнены.

Южная Корея у многих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прогрессом, высо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постоянным развитием.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корейцам есть много, чем гордиться, у них стоит многому поучиться, но вот ситуация с качеством воздуха такова, что кажется буд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оборот откат в прошлое, либо, может быть, в страшное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рисовали некоторые писатели-фантасты, предсказывая экологическую катастрофу.

Это в некоторой степе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ранно.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прошла стадию б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гда зачастую ради высоких темпов роста в жертву приносилась экология. Корея уже давно входит в число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ее продукция качественная, но отнюдь недешевая, а потому, казалось бы, что и в отношении природы должно быть так, "как у самых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Но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се идет по обратному сценарию.

Сами корейцы недоумевают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Когда я был студентом в середине 1990-х гг., то человек в маске вызывал недоуменные взгляды. Это означало, что ты либо серьезно болен простудой и не хочешь заражать других, либо скрываешь лицо. Никто не носил маски из-за плохого воздуха, хотя тогда, казалось бы, мы были еще развивающейся страной. Сейчас же маска стала обычным предметом, чем-то типа зонтика, который привычно берешь с собой.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ез них никак. В такие дни, как сейчас,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обходимы. В домах у всех стоят очистители воздуха", - жалуется сотрудник одной из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47-летний Ким Чхан Сок.

Родители же беспокоятся по поводу детей, которых трудно убедить носить маску. "Нам-то что: одела маску и пошла, понимаешь, что это надо. А моя маленькая дочка ни за что не хочет носить. Да ее понять можно, как играть в маске?! В ней неудобн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лица друзей не видно.", - отметила живущая в Корее россиянка Юлия.

Но бытовые неудобства - это лишь самая малая и безобидная часть проблемы. Эти самые ультрадисперсные частицы PM2.5 крайне вредны для здоровья. Они не выводятся из организма и накапливаются. Врачи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это "бомба замедленного действия", которая "рванет", когда человек станет пожилым или может даже раньше. "Эти частицы провоцируют развитие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болезни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рак легких.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с воздухом не проходит бесследно. Пока человек молодой, то организм справляется, как-то подавляет симптомы, но все в итоге "вылезает" с возрастом. Ес-

ли говорить проще, то эти частицы в итоге сокращают нашу жизнь", - отметил сеульский врач-терапевт Ким Тхэ Ван, комментируя ситуацию для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ты".

Нынешняя проблема с воздухом стала актуальной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мерно в последние семь-восемь лет. Раньше Корея была известна зимой за "ослепительно голубое небо", а теперь все затянуто дымкой, которую принимают за туман. На самом же деле это та самая мелкая пыль, которая крайне вредна для здоровья.

По поводу причин подобной ситуации есть несколько точек зрения. 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чаще всего кивают на Китай, указывая на схожий смог в Пекине и проч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КНР, утверждая, что все это - "китайский подарок". Однако иностранные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это верно лишь отчасти.

Безусловно, часть пыли и смога приходит из Поднебесной, но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этого вреда корейцы производят сами. Более 40 процентов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Южной Кореи вырабатывают на ТЭЦ, работающих на угле. Многие из них устаревшие, а потому в атмосферу каждую секунду летит сажа и пыль. Кроме того,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больше не строить новых АЭС, а потребность в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В итоге приходится полагаться на ТЭЦ. Попытка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развивать работающие на газе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которые выбрасывают куда меньше смога, чем угольные, пока еще не до конца реализована.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сидит сложа руки. При повышенном содержании вредных частиц интенсивность работы угольных ТЭЦ страны начинают ограничивать, в госучреждения вводя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дорогах запрещают движение старым дизельным автомобилям. Однако все это пока не приносит эффекта. Воздух становится из года в год хуже. На днях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антирекорд по загрязнению.

К сожалению, Сеул и прочие корейские города становятся теми городами, где люди не хотят жить именно из-за качества воздуха. "Мы с женой проработали в Китае два года и когда нас переве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то мы обрадовались, думали, что наконец-то сможем дышать нормально. Здесь, конечно, получше, но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напоминает китайскую ситуацию. С Китаем проблема, что туда, несмотря на хорошие денежные условия, многие сотрудники, у кого есть дети, отказываются ехать. С Кореей теперь то же самое. Мы думали, может быть проработать два года и продлить свое пребывание, но теперь склоняемся к тому, чтобы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в установленный срок. Здоровь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дороже", - сказал "РГ" Алекс Л., работающий в крупной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порации.

В момент, когда писались эти строки, на популярном приложении, которое сейчас есть на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ах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или живущих в Кореи иностранцев, ситуация с воздухом описана как "очень нездоровая, рекомендовано оставаться в помещении". И так уже пять дней подряд. Метеорологи обещают, что ситуация может улучшиться завтра, но признают, что зимой и весной в Корею надо быть готовым, что подобные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будут появляться очень час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15 января 2019 г., РГ)

## В праздник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корейцы потратят в среднем 366 долларов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работающие южнокорейцы намерены потратить в среднем 366 долларов.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анализа, проведенного сайтами JobKorea и Albaton, которые специализируются на вопроса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Эксперты провели опрос среди 1.217 человек.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07 долларов. Предполагаемые расходы у людей, состоящих в браке, в два раза выше, чем у тех, кто пока не создал семью. Между тем,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из указанных 366 долларов корейцы намерены раздать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ов младши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Среди людей старше 50 л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бюджет составил 320 долларов.



(KBS World)

## В РК большая разница в размере зарплат между малыми и круп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В РК сохраняется большая разница в размере зарплат между малыми и средними и круп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в небольших компаниях составил 2.900 долларов, а в крупных 4.600 долларов. В 2012-2013 годах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лял 64,1% от уровня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в 2014 году - 62,3%, в 2015 году - 62%, в 2016 году - 62,9%, а в 2017 году - 68,6%. В докладе такж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 2017 году в РК насчитывалось 3 млн 547 тыс. 100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На них пришлось 99,9% всего частного бизнеса.

(KBS World)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рейтинге оценки индекса рынка труда

Эксперты РИА «Рейтинг» рассчитывают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чтобы комплексно оценить ситуацию на рынке труда в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единственны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регионом, которая вошла в ТОП-10 российских субъектов в этом рейтинге.

Индекс труда учитывает не только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в том или ином регионе страны, но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работника. При расчете производится анализ та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как уровень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занятость,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а также емкость рынка труда.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лидерах рейтинга отмечается низкий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короткое среднее время поиска работы и высокие зарплаты.

По итогам 2017 года, индекс в России варьировался от 10,5 до 91 балла – при этом, чем показатель выше, тем благоприятнее ситуация на рынке труда в регион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 результатом 64,5 балла расположилась на восьмом месте, соседствуя с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ью и Красноярским краем. Кстати, годом ране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брал 63,3 балла и был девяты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огодни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первая пятерка субъектов не изменилась и выглядит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Моск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и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 За прошлый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иквидированы долги по зарплате на сумму 1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Задолженность по оплате труда была погашена для 2,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о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отметили сегодня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ко Дню работников прокуратур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Он поздравил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от имени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еятельность органов прокуратуры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успеш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едь в сфере надзор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находятся все самые важны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лияют на экономику, социальную сферу, интересы люд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 Все это в целом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вышению дел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в регионе,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сотрудники прокуратуры получили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благодарности, а также нагрудные знаки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прокурорскому реагированию устранены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а, допущенные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в сфере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землепользова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права граждан на своевременную оплату труда, получение качественных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обеспечение комфортным жильем.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опротестовано 2,5 тысячи незакон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ов, внесено 4 тысячи представлений, по актам прокурорск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3 тысячи лиц привлечены к дисциплинар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а 2 тысячи – 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Прокурорами инициировано возбуждение 85 уголовных дел.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находились вопросы соблюд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й сфере. Так, благодаря вмешательству органов прокуратуры одна из управля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рнула потребителям необоснованно начисленные платежи на сумму более 1,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перешла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Переход состоялся в новогодние выходные дни, когда происходит наибольшее накопление мусора. При этом работа коммунальщ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вызвала нареканий со стороны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органов.

Напомним, новая система по обращению с ТКО нужна,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сократить захоронение отходов, наладить их переработку и избавиться от нелегальных свалок, как результат –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на островах. Эта задача возложена н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ТКО». Ранее доставкой мусора на свалки занимались управляющие и обслуживающие компании.

На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ах в некоторых городах страны возникли трудности с вывозом мус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ьезных проблем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благодаря заранее принятым мерам и оперативному

реагированию.

Ситуация находилась на личном контроле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кануне праздников глава области распорядился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сообщать о невывезенном мусоре с помощью системы экстрен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112».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л единственным в стране, кто использовал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ично оценил работу диспетчеров, и как показала практика, такой способ оказался эффективным дл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людьми. Сигналы о скоплениях ТКО диспетчеры принимал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праздничных дней.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еще до начала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жилищная инспекц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вела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выездных проверок по содержанию контейнерных площадо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ском и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ах.

Глава региона дал указание, чтобы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были назначены ответственные за контроль над вывозом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 Жители могли в любой момент обратиться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чтобы сообщить о скоплениях мусора или других проблемах. С этой же целью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были созданы группы WhatsApp. Не скрою, обращения были, и мы к ним были готовы. В каждом случае к проблеме подходили индивидуально. Также свой мониторинг проводили инспектор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ператора,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нимали меры.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сложностей возникло в Ох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ах. По итогам проведенных проверок выявлены и устранены проблемные места.

Некоторые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не стали вывозить мусор 30 и 31 декабря, хотя обязаны были это сделать. О т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х предупредили главы районов и сотрудн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Региональному оператору пришлось транспортир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ъемы отходов, накопленные за два предпраздничных дня. Также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ов специалисты обнаружили места накопления ТКО, не включенные в маршрутные графики перевозчиков, туда направля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транспорт для вывоза отходов и ликвидации стихийных свалок.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готовка к играм «Дети Азии» идет по графику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I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которое состоялось в Москве 10 январ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 Сейчас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две задачи. На игры заявилось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тей, и они должны уехать с хорошими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вторая задач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используя проведение игр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поднять интерес к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спортивных сооружений, – подчеркнул Юрий Трутнев.

На встрече, в которой также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общил об уже проведенных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 Все работы идут по графику. Сейчас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завершению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рганизации перевозки, размещения и пит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игр,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ивных федераций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готовнос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их площадок как по общему оснащению, так и по спортивному оборудованию. Это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ластер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д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ноуборду и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гора «Парковая» (сноуборд), ледовый дворец «Кристалл»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шорт-трек), лыжно-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лыжные гонки и биатлон), Школ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и ледовый дворец «Арена сити» (хоккей).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звал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всех объектах игр. Для этого определено необход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трудников органов правопорядк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приобретены системы контроля доступа на объекты.

На сегодня заявки об участи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ступили от 28 команд из 20 государств, по количеству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идах спорта лидируют хоккей, лыжные гонки, шорт-трек и сноуборд. Основными объектами размещения гостей на время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нут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Восток», гибридный отель

«Юность», санаторий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и общежитие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Между объектами размещения, питания, тренировок и соревнований их будут перевозить на специальных шаттлах.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игр «Дети Азии» пройдут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в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й части представлений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боле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з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До старта игр осталось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поэтому подготовка к ним идет полным ходом. Уверен, что вместе с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ми управлениями мы сможем провести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 докажем,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пособна принимать подобные события. Это серьезно повысит престиж региона и его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Но для нас гораздо важнее, что обновл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транспорт, медицин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будет долгие годы служить жителям островов, – подытож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решено, что Минздрав РФ направ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игр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сурсы дл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Минспорт для проверки готовности объектов направит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нимавших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и подготовкой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Сочи. Проверо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ведут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а Минкомсвязи в дни соревнований запустит «ежедневные дневники» игр на телеканале «Матч ТВ».

I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рой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8 по 17 февраля. В ни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более 13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0 стран, а также 600 судей и около 1000 волонтеров. Будет разыгран 91 комплект медалей по 8 видам спорта: лыжные гонки и биатлон, шорт-трек,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хоккей, горные лыжи и сноуборд, прыжки с трамплина.

Эстафета Огня спортивных игр стартовала 7 января с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Факелonosцы пронесли символ состязаний по островам Кунашир и Шикотан. 12 января спортсмены добрались до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го острова Парамушир, а 18-го эстафета начнет свое шествие по Сахалину, начиная с Охи.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Огонь игр пересечет 8 февр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ня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ылов горбуши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в Моск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уководител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льей Шестаковым.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еговоров приня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ое решение о возможности свободного вылова горбуши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и по уровню добычи, и по уровню переработки. Поэтому крайне важно, что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находились в тесном контакте и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ли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касающимся развит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рынка островов, – подчеркнул Илья Шестаков.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итоги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2018 года, борьбу с браконьерством и совместные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добычу, переработку,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Такж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нял важный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опрос о свободном вылове рыбы лососевых пород.

– К сожалению, сейчас далеко не все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ут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купить свежую рыбу в магазинах или даже на рынке, но их выручает рыбалка. Однако по вылову лососевых, в частности горбуши, существуют ограничения. Считаю, что нужно разрешить свободный вылов для собствен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 это станет важным шагом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обесп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свежей рыбой,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с этой позицией согласился и предложил разрешить свободный вылов горбуши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рыбалка будет вести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удочками и спиннингами, и толь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орского побережья, а суточная норма улова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5 кг. Власт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определили места вылова горбуши, их остается утвердить. После этог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зменения внесут в «Правила рыболовств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бассейна». Законное основание для вылова ценной рыбы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явится к началу хода горбуш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日 "韓, 징용판결 외교협약의 30일 내 결론내라"

외교적 협의 요청서에 '30일 내' 답변 시한 명기 韓 '신중 모드'로 일관하자 시간 제한으로 압박 협의의 성사 안되면 중재위 요청, ICJ 제소 가능성 "위안부 문제 등도 다루자" 역제안 검토 전해져 韓 무대응시 "국제법 위반" 공세 더 강화될 듯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적 협의의 요청 문건에 "30일 이내로 답변하라"는 취지의 문구를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일 외교부에 보낸 한일 청구권협정상 외교적 협의의 요청 문건에 답변 시한을 '30일 이내'로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보유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법원이 지난 8일 승인함에 따라 자국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자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계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한 답변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줄곧 자국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한국을 압박해 왔지만, 우리 측이 해를 넘겨서도 답을 내놓지 않자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협의의 요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답변 시한을 넘겨도 한국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분쟁 해결책으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2항에 따르면 외교적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요청을 받은 나라가 30일 이내에 수락을 결정하면 3인으로 중재위원회가 구성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재위 구성이나 ICJ 재판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 가장 후순위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서울=뉴시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또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11월 12일에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바 있다. <사진출처:NHK 화면 캡처> 2018.12.04

양국 국민의 정서가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교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뿐만 아니라 위안부, 사할린 동포 등 다른 강제징용 문제도 함께 협의하자고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사법부 판결에 국한한 외교적 협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의 이처림 제안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앞서 2011년 8월 한국 정부는 "위안부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일본의 요청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무대응' 하는 방안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전해졌다. 한국의 2011년 외교적 협의 제안에 일본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럴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청구권협정상 협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라며 기존의 공세 논리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 [우리말로 깨달다]

### 아버지와 닮았다

'아버지'는 18세기에 돌연 등장한 어휘입니다. 모음조화라면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타난 것도 특이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19세기에 나타납니다. 지가 왜 갑자기 생겨났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어지, -아지'가 붙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으나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지, 아지는 주로 대상을 축소할 때 사용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송아지'라고 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축소사라고도 합니다. 저는 '-지'가 외래의 요소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한 분인데 아무한테나 쓰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특이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학부모를 선생님이 부를 때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잘 부르지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자신의 아버지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져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극히 드물게 들립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도 이제 점점 아버지 대신에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러다가 아버지라는 호칭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빠라고 부른 기억이 없습니다. 아빠라는 말에서 정이 훨씬 느껴질 때도 있어서 가끔은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아빠라고 부를 일은 정말 없겠죠.

아버지라는 호칭이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라는 호칭은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놀라움을 느낍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머니나 엄마라는 말에서 훨씬 더 감정의 울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제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들로도 살아보고, 아버지로도 살아보니 즐거움과 안타까움이 스치며 웃음이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와 닮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특히 걸모습은 많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소리나 식성, 걸음걸이 등은 비슷해도 말입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마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반씩 닮았으니 완전한 일치는 어렵겠죠.

어떤 광고에서 몇 십 년 뒤의 모습으로 자신을 분장해 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촬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자 중 몇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분장한 모습에서 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아들이 아버지처럼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도 요즘 사진을 찍어보면 제 사진에서 아버지가 보입니다. 약간 멀어서 찍거나 흐린 곳에서 찍은 사진에는 아버지가 더 잘 보입니다. 물론 지금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보았던 아버지 말입니다. '그 때 참 힘드셨겠구나.'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습니다. 아버지께 더 자주 연락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전 세계 한류 팬 9,000만 돌파 코앞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 지구촌 한류 현황' 발간... 세계 113개국 한류 핵심 정보 수록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KF, 이사장 이시형)은 '2018 지구촌 한류 현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전 세계 한류 현황을 분석해 책으로 펴내고 있는 KF는 '2018 지구촌 한류현황'이 전년 대비 1개국(기니)이 추가된 총 113개국의 한류 현황, 문화적 특성, 문화교류 시 유의사항 등을 비롯해 94개국의 한류 동호회 및 동호회원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18년 12월 기준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843개, 한류팬 수는 전년의 7,312만 명 대비 22% 증가한 8,919만 명으로 조사됐다.

또 작년 한류 확산에 기여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는 단연 방탄소년단(BTS)의 활약을 꼽을 수 있

으며, 미국 내 한류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은 세계 팝 음악 중심지인 미국에서 케이팝의 가치와 위상을 확실히 증명함으로써 한국의 대중문화와 음악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높였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한한령, 협한류 완화 조짐이 관찰된 것 또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2016년 우리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공식 결정 이후 급격히 위축된 중국 내 한류들 고려할 때

지난해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7편이 상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본 내 한류팬 수가 기존 10만 명대에서 30만 명 대로 뛰어오른 점도 일본의 협한류를 우려하고 있던 한류 산업 관계자들에게 고무적이라

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한류 발전의 '최대 공신'인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중남미 지역의 한류 동호회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 또한 한류 동호회 수가 2015년 73개에서 2018년 140개로 늘어나는 등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시형 이사장은 "한류가 소프트파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 및 정책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류 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 '2018 지구촌 한류현황'이 한류 연구자, 정책 입안자 및 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8 지구촌 한류 현황'을 정부, 언론, 문화예술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한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http://ebook.kf.or.kr>)으로 편리하게 책자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Дв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улетели за границу на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ах

На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ах границ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аэропорту Хомутovo пересекли 3,5 тысячи раз.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вылетали прямыми рейсам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Японию и Таиланд.

Как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таможне, 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окидали страну, а еще 1,5 – въезжали в Россию из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уменьшился - прошлые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за рубежом провели более 4000 человек.

К тому ж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уменьш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самолетов, вылетающих за границу: всего 42 против 52 прошлогдних.

Не обошлось и без происшествий. За нарушение таможенного правила о декларировании товара возбужден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дело в отношении гражданина Дании, который прилетел на Сахалин рейсом из Сеула. Мужчина пытался провезти через границу 360 сигарет «Marlboro» и 180 стиков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сигарет «Fiit». Таможней установлено правило о том, что один человек вправе ввезти в страну не более 200 сигарет, к которым относятся и электронные сигареты. Имущество изъяли и поместили в камеру хранения.

На морских границах Сахалина таможенных нарушений не обнаружено.

## 사할린주민들에게, 위조 화폐에 대해 경고

지난해 사할린에서 위조지폐 26장이 발견되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위조지폐의 발견 수치는 2017년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위조지폐 사고는 그리 많지 않으며 사할린에서 발견된 양은 러시아 다른 연방지역에서 보다 몇 배나 적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모든 사실을 수사 중에 있다.

화폐위조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위조지폐는 5000루블짜리 지폐이고 1000루블짜리 지

폐도 위조되고 있다. 2017년에는 5000루블과 1000루블의 지폐가 균등하게 발견되었고 2018년에는 대부분이 고액의 지폐에 해당했다. 작년에 처음으로 2000루블의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조지폐의 품질은 현저히 떨어져 오직 밤에나 급히 교환할 때에만 사기를 당할 수 있을 다고 밝혔다. 현대 기술은 일반인에게 휴대전화에 특수 앱을 설치해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도록 돕고 있다.

현금인출기에서 위조지폐를 받기는 불가능하며 상점에서 거래상 위조지폐를 받을 확률도 높지 않다. 보통 지갑 속에 들어간 위조지폐는 사할린 주민들이 직접 사람에게서 받은 경우인데 예를 들면, 고액의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다.

## Сахалинцев предупреждают о фальшивых купюрах

На Сахали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явили 26 фальшивых купюр.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заявляют, что эта цифра намного ниже, чем в 2017 году. Появление поддельных купюр носит незнач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количество фальшивок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зы ниже, чем в остальных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сем фактам ведется следствие.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у фальшивомонетчиков - пятитысячные банкноты. Подделываются и тысячные купюры. Но если в 2017 году примерно поровну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пятитысячные и тысячные, то в 2018 году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пришлась на более крупные банкнот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попались подделки двухтысячных банкнот. Но,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качество их довольно низкое и обмануться можно только второпях или в темнот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могают человеку отличить настоящую купюру от фальшивой. Для этого в мобильном телефоне 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специа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Получить фальшивую купюру в банкомате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Также мала вероятность стать обладателем подделки после похода в магазин. Как правило, нарисованные деньги попадают в кошельки сахалинцев от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Например, после просьбы разменять крупную банкноту.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대한민국 파주 문산에 거주하는 김용남·이정자 부부께 드리는 축하문

Примите искренни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Золотой свадьбой и 75 летним юбилеем!



*Прошли полвека по одной дороге  
На золотой взойли вы пьедестал  
И юбилей уж на пороге -  
За свадьбой золотой вас следом и застал.  
У вас двойное торжество сегодня  
Без четверти век прожит – 75!  
Из них в два раза дольше вместе вы, чем порознь  
Весь год вас будем неустанно поздравлять!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мира вам, родные  
Любви, взаимного тепла и доброты,  
И долгие года быть рядом с нами  
Чтоб мы могли дарить вам радость и цвет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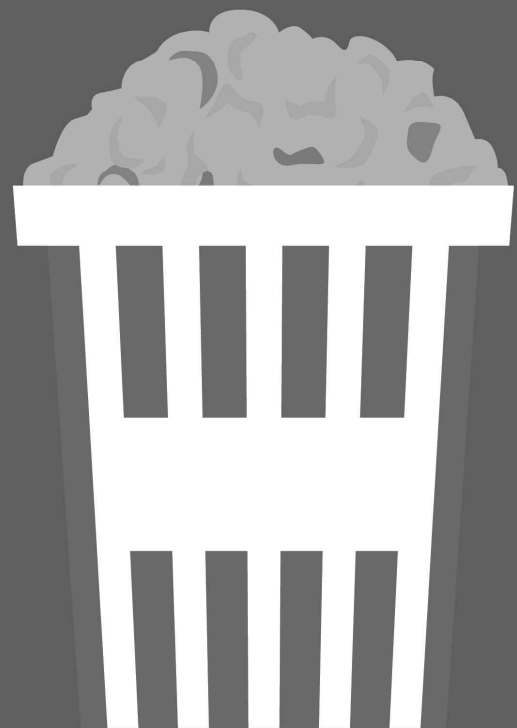
Любящие Вас дочери, зятья и трое внуков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